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 분석*

- 2006년 지방선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Voters in the 2018 Local Election: Focusing on comparison with the 2006 Local Election

가 상 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Abstract

Sangjoon Ka

This study aims at finding characteristics of voters' behavior when the election outcome is clearly expected. Particularly,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oters who were identified with the government party and those who were identified with the opposition party are examined when the government party is expected to win by a landslide like the 2018 local elections. In order to look closely at the characteristics of voters, the study investigates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2006 local election where a landslide victory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was expected contrary to the 2018 local ele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supporters of the party located in a favorable situation had a strong tendency of sincere voting and straight voting in both 2018 and 2006 local elections. On the other hand, it was expected that supporters of the party in a unfavorable situation show high sincere voting and straight voting to rally, but the expectation did not mee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when the ruling party was in favor the voting choices of the government party supporters were different from the voting choices of opposition supporters when the opposition party was in favor.

It is hard to say that these results are the general voting behavior of party supporters. Nevertheless, the study is very meaningful in terms of that it close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voting behavior of the Korean electorate, especially those with party identification in relation to election conditions.

Keywords: local election, sincere voting, straight voting, party identification, party preference, voting behavior

* 이 연구는 2018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I. 서 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1998년 선거는 DJP연합이 이끈 선거였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완승을 거둔 2018년 지방선거와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부에 대한 중간적 성격을 띠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2018년 지방선거는 과거 다른 선거와 다른 특징을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화 이후 여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강한 지지가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와 함께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여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때보다 강했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유권자에게 통하지 않은 선거였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하겠지만 2018년 지방선거는 과거 전국 단위 선거와 비교해 많은 면에서 특이한 점들이 발견된다.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전통적 자유한국당 지지 지역이었던 영남에서 민주당의 세력 확장 등은 촛불혁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치면서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구도에 커다란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이라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 하겠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높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탄핵의 여파에서 헤어나지 못하였고, 당내 계파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유능한 후보자 공천, 이를 통한 지지자 결집,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의 리더십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 큰 이유였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뚜렷한 상황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어떠한 투표행태를 보였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어떠한 투표행태를 보였는지 알아보려 한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1인 7표를 행사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 중 교육감 선거를 제외한 6표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이기에 정당일체감과 투표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다. 한편, 2018년 지방선거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즉,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한 정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지방선거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2006년 지방선거 결과와의 비교는 중요한 의미를 보인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수도권, 충청, 강원, 그리고 지역적 지지기반이었던 지역에서 승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인 한나라당

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황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어떠한 투표행태를 보였으며 야당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어떠한 투표행태를 보였는지 알아봄으로써 2018년과 반대되는 상황과 비교를 통해 유권자들의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과거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과거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 실시되었던 시기와 달리 정당에 대한 투표가 따로 실시되면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아졌다(김정도 2014; 박찬욱 2004; 조진만·최준영 2006; 한상익 2013). 이러한 점은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강원택 2010; 윤광일 2014; 지병근 2014). 그러나 과거 연구들이 어떠한 요인이 일관투표 혹은 분할투표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특정 정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 지지자들과 여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Ⅱ. 지방선거 기존연구 검토

지방선거 관련 다수의 연구는 지방선거의 성격을 규명하려 분석하고 있다. 즉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아니면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지역적 행사인지 알아보는 연구다(강신구 2014; 강원택 1999; 이남영 2011; 송건섭·이곤수 2011; 장승진 2019; 황아란 2013, 2015). 장승진(2019)과 같이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다층적 회고적 투표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라 하겠다.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보는 연구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평가다.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경제, 외교, 나아가 국정 전반에 대한 민심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거결과를 이해하는데 있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갖는 의미는 큰 편이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중앙정치의 일부로 여기는 것은 약한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권한이 약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한 공천이 정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와 분리해 평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결과에 대한 설명에 있어 경제적 상황에 대한 평가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유권자들이 경제적 상황을 통해 투표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선거결과를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라 하겠다. 한편, 한국선거에 지역주의는 항상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설명함에 있어 영호남 지역주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한편,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영남출신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지역주의가 약해지고 있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묵 2014; 정진민 2012;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영남 특히 호남에서 두드러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만 세대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결과 및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정당일체감을 빼 놓을 수 없다(박원호·신화용 2014; Campbell et al. 1960). 특정 정당에 대해 느끼는 애착감은 정당에 대한 지지 활동 그리고 투표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잘 변화하지 않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갖는다. 정당일체감은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데 있어 다른 요인보다 포괄적인 변수라 하겠다. 한편, 선거를 지역차원에서 정부구성을 위한 정치적 행사로 보는 관점에서 현직효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황아란 2013; 2015). 선거에서 현직이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력, 자금력, 제도적으로 현직에게 유리한 조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가지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 정도는 도전자에 비해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위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시도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2001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당에 대한 투표가 허용되면서 유권자들이 일관투표(straight voting)하는지 아니면 전략투표(strategic voting)하는지 분석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지방선거가 복잡해 분할의 동기가 다를 수도 있다(최효노 2015). 그럼에도 관련 연구들은 유권자가 투표행태 즉, 일관투표와 전략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정당일체감, 이념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Campbell and Miller 1957; 강원택 2010; 송정민 외 3명 2012; 윤광일 2014; 조진만·최준영 2006; 지병근 2011; 최효노 2015). 조진만·최준영(2006)은 거대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일관투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강원택(2010)의 경우 지지 정당, 특히 집권당에 대해 불만이 많은 유권자일수록 지지 정당에 투표하지 않는 저항(protest)투표 경향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와는 달리 여당에 대한 선호도가 클수록 일관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송정민 외 3명 2012; 지병근 2011). 연구자들은 분할투표에 대한 연구에 있어 최선호 정당 이외의 다른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분할투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최효노 2015). 비슷한 맥락에서 정한울(2013)은 특정 정당에 대한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 정당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상극적 태도층이 일극적 태도층, 상충적 태도층, 무관심층(혹은 전통적 태도층)에 비해 일관투표할 경향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지병근(2014)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즉, 유권자의 선호 정당과 투표와의 관계 속에서 순수투표(sincere voting), 전략투표 그리고 항의투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순수투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투표며, 전략투표는 군소정당 지지자들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양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투표며, 저항(항의)

투표(protest voting)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투표라 말할 수 있다. 지병근(2014)은 양대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광역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선거에서 낮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Ⅲ. 가설 설정

본 연구는 선거 전 지지하는 정당이 매우 유리한 혹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투표행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2018년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과 제1야당에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한다. 여기서는 거대정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때문에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사표방지 전략투표,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정책균형 분할투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신, 거대정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를 순수투표와 저항투표 차원에서 알아봐야 한다.

앞서 정당에 대한 저항투표가 여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즉, 여당을 지지하지만 집권당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높았기에 집권당 지지자들의 불만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 이는 박근혜 탄핵의 여파 그리고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저항투표할 경향이 높다고 하겠다. 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 지지자들의 저항투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가 낮은 상황으로 여당 지지자들도 집권당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의석의 경우 순수하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만큼 순수투표할 가능성이 크다(Johnston and Pattie 2002; 조진만·최준영 2006). 이는 지역구 의원선거보다는 비례대표선거에서 순수투표 경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정당일체감이 군소정당에 있는 유권자의 경우 비례대표에 대한 순수투표 경향은 지역구에 비해 클 것이다. 그러나 거대정당에 대해 정당일체감을 가지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상황에 따라 단체장, 지역구 의원, 그리고 정당에 대한 투표에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2018년과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병근(2014)는 양대 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가 광역의회선거보다 기초의회선거에서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의회선거에서의 순수투표가 기초의회선거보다는 높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 변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특히,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다른 거대정당에 대해 혐오도가 높을수록 순수투표 그리고 일관투표할 가

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도가 높을수록 일관투표 그리고 순수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Ⅳ. 통계적 분석

1. 2018년 지방선거 분석

2018년과 2006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알아보았다.[1] 먼저 2018년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을 알아보았다. 〈표 1〉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36.7%였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13.6%였다. 정당일체감이 없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47.1%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18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당	빈도	%
더불어민주당	367	36.7
자유한국당	136	13.6
바른미래당	14	1.4
민주평화당	4	0.4
정의당	8	0.8
무당파	471	47.1

다음으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순수투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순수투표는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순수투표는 97.9%로 다른 어느 선거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광역의회 지역구선거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순수투표 비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례대표선거의 순수투표 비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지병근의 주장처럼 광역의회선거의 순수투표 비율(93.9%)이 기초의회선거순수투표 비율(89.3%)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 비율도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낮다는 점

[1] 2018년 지방선거 설문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 지방선거 설문조사는 한국선거학회에 의해 실시되었다. 모두 선거 후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 비율이 낮은 것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달리 가장 높은 순수투표 비율을 보인 선거는 기초비례대표선거로 91.9%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순수투표 비율도 높은 편으로 91%였으며 다음은 광역의회 지역구선거였다. 앞선 결과와 같이 광역의회 선거의 순수투표 비율(88.3%)이 기초의회선거순수투표 비율(85.6%)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2〉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순수투표

선거유형 / 정당일체감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기초비례
더불어민주당	274 (97.9%)	263 (93.9%)	248 (88.6%)	252 (90.0%)	250 (89.3%)	248 (88.6%)
자유한국당	101 (91.0%)	98 (88.3%)	91 (82.0%)	83 (74.8%)	95 (85.6%)	102 (91.9%)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자유한국당 지지자 모두 순수투표하는 경향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선거에 유리한 상황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압도적 선거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충성심을 보여주는 투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성심은 불리한 상황이 아닌 유리한 상황에 놓인 정당 지지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 유권자들이 결집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정당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지지 정도를 살펴보았다. 지방선거에서 6표 중 과연 몇 표를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표 3〉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유권자 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더불어민주당에 일관투표한 유권자는 77.1%인데 비해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일관투표한 유권자는 59.5%로 낮은 편이다.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순수투표 결과와 상응해서 일관투표에서도 유리한 상황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확고한 충성심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두 정당에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그리고 낮은 투표지지를 선택한 유권자도 어느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유권자 중 약 90%는 4표 이상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정당별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지지 정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0표	3	1.1%	1	0.9%
1표	3	1.1%	1	0.9%
2표	1	0.4%	3	2.7%
3표	11	3.9%	9	8.1%
4표	29	10.4%	15	13.5%
5표	17	6.1%	16	14.4%
6표	216	77.1%	66	59.5%
계	280		111	

카이제곱=19.230(p〈0.001)

앞선 결과를 통해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지만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지정당 외에 어느 정당에 투표하였는지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투표행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5표만 혹은 4표만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선택을 살펴보았다.[2] 〈표 4〉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5표만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또 다른 선택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및 기타정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제1야당에 대한 지지를 선택한 유권자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4〉 더불어민주당 5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투표 / 정당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광역 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	기초 비례	계
더불어 민주당	15	16	11	15	13	15	
자유 한국당	1	0	2	1	3	1	8
바른 미래당	0	1	1	0	0	0	2
민주 평화당	0	0	1	0	0	0	1
정의당	0	0	2	0	0	0	2
무소속 및 기타	1	0	0	1	1	1	4

2) 지지하는 정당에 0, 1, 2, 3표 투표한 유권자도 알아보았으며 이들의 투표행태가 4, 5 투표한 유권자의 특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을 전부 보여주기에는 지면상 한계가 있어 4, 5표 투표한 유권자의 특징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4표만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29명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면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대한 선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더불어민주당에 일관투표한 유권자 그리고 5표를 행사한 유권자에 비해 지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견제 심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표 5〉 더불어민주당 4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투표 / 정당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광역 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	기초 비례	계
더불어 민주당	28	23	16	17	18	14	
자유 한국당	1	2	5	4	4	6	22
바른 미래당	0	4	1	2	4	0	11
민주 평화당	0	0	1	1	0	0	2
정의당	0	0	3	4	1	7	15
무소속 및 기타	0	0	3	1	2	2	8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5표만 혹은 4표만 투표한 유권자의 선택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유한국당에 5표를 투표한 유권자의 선택은 어디였는지 알아보았다. 〈표 6〉을 통해 이들의 선택은 무소속 및 기타정당이었고 자유한국당과 이념적으로 가장 유사한 바른미래당도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경우도 있었는데 비례대표와 단체장보다는 지역구 의원에서 발견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5표 투표한 유권자는 자유한국당에 투표한 경향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무소속 혹은 바른미래당에 투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29명은 더불어민주당에 4표 행사하였는데 나머지 2표 합 58표는 어디로 향했는지 알아보았다.

〈표 6〉 자유한국당 5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정당 \ 투표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광역 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	기초 비례	계
더불어 민주당	0	2	0	0	2	0	4
자유 한국당	13	14	15	8	14	16	
바른 미래당	3	0	1	1	0	0	5
민주 평화당	0	0	0	0	0	0	0
정의당	0	0	0	0	0	0	0
무소속 및 기타	0	0	0	7	0	0	7

다음으로 자유한국당에 4표만을 지지한 유권자의 선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5표를 투표한 유권자의 경우 무소속/기타정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가 높았는데 4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을 많이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4표 선택한 유권자와 5표 선택한 유권자 간 투표행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자유한국당과 대결구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거상황에 따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간 투표행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제1야당에 대한 선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불리한 입장에 놓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선택은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표 7〉 자유한국당 4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정당 \ 투표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광역 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	기초 비례	계
더불어 민주당	2	2	3	4	1	0	12
자유 한국당	13	10	7	6	10	14	
바른 미래당	0	2	3	4	2	1	12
민주 평화당	0	0	0	0	1	0	1
정의당	0	1	1	1	1	0	4
무소속 및 기타	0	0	1	0	0	0	1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선거에 유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순수투표는 선거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순수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면 여당 지지자들은 제1야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고 야당 지지자들의 여당 선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정당일체감이 같더라도 지지 정도에 따라 투표행태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일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데 있어 차이를 불러온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여기서 종속변수는 지지 정당에 6표 중 몇 표를 행사했는지 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이념,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 경제상황 평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다.[4] 이에 대한 결과를 〈표 8〉이 보여주고 있는데 두 유권자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표지지 정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는 이념, 문재인정부 평가, 경제상황 평가, 민주당 호감도 그리고 한국당 호감도 모든 변수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투표지지를 구분짓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여당 지지자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투표지지 정도를 결정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자유한국당 투표지지 정도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선거에서 유불리에 따라 정당 지지자들이 고려하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인 여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요인에 따라 투표지지 정도를 결정하는데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인 야당 지지자들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투표지지 정도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표 8〉 두 유권자 투표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

변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F 값	유의확률	F 값	유의확률
이념	1.106	0.359	3.180	0.007
문재인정부 평가	3.525	0.002	2.136	0.055
경제상황 평가	1.176	0.319	2.374	0.034
민주당 호감도	2.092	0.054	2.496	0.027
한국당 호감도	1.287	0.263	2.312	0.039
연령	1.020	0.413	1.068	0.387

4) 이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2006년과 비교해 보려 했으나 2006년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한 문항과 각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문항이 없으며 이념과 교육, 소득수준을 묻는 문항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직접적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산분석 차원에서 비교를 시도하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두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일관투표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야당 지지자들에 비해 높으며 특히, 6개의 선거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는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관투표하지 않은 여당 지지자들은 제1야당에게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지하는 정당임에도 견제심리가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유리한 입장에 있는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지지 정도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여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야당 지지자들의 일관투표와 6개 선거에의 순수투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 일관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주로 이념적으로 비슷한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투표지지 정도는 다양한 요인, 즉 대통령에 대한 평가, 경제상황, 여당 및 야당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이념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놓인 상황에 따라 투표행태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지하는 정당이 불리할 경우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높은 충성심을 발휘할 것이라 예상해 보았지만 유리한 입장에 놓인 정당의 지지자들에 비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투표하지만 이와 함께 이념적으로 비슷한 정당에도 투표함으로써 여당에 대항하는 두 개의 야당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2. 2006년 지방선거 분석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여당이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제1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이와는 상반되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2006년 지방선거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었다. 2018년과는 다른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과 제1야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2006년 지방선거 후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조사해 보았다.[5] 〈표 9〉에서 보듯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가 많았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해 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는 많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지 않은 무당파가 52.5%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5) 2006년 설문조사는 2018년 설문조사와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8년 정당일체감은 “선생님께서는 가깝게 느끼는 특정 정당이 있습니까?” 없는 경우 “그렇더라도 다른 정당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습니까?” 두 번의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는데 2006년의 경우는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가깝게 느끼시는 정당이 있으십니까?의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차이로 정당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비율이 2018년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9〉 2006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당	빈도	%
열린우리당	94	9.4
한나라당	285	28.5
민주당	56	5.6
민주노동당	22	2.2
국민중심당	8	0.8
기타정당	2	0.2
무소속	525	52.5
무응답	8	0.8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순수투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낮은 순수투표 경향이라 하겠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여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당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저항투표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비해 제1야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는 매우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순수투표율은 매우 높고 기초의원 지역구 순수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과 연계시켜 보았을 때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는 매우 높지만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정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는 낮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리한 혹은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정당이 여당 혹은 제1야당이던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공통적인 투표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두 유권자를 통해 광역의회 지역구선거의 순수투표 비율이 기초의회 지역구선거 순수투표 비율보다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순수투표는 지역구 선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18년과 다른 결과라 하겠다.

〈표 10〉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순수투표

선거유형 / 정당	광역 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의회	기초비례
열린 우리당	52 (77.6%)	42 (62.7%)	49 (73.1%)	37 (55.2%)	39 (58.2%)	47 (70.1%)
한나라당	216 (93.5%)	209 (90.5%)	211 (91.3%)	215 (93.1%)	196 (84.8%)	213 (92.2%)

여당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때 여당 지지자들의 낮은 순수투표 높은 저항투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유리한 위치에 놓인 정당의 지지자들의 높은 순수투표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다음

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를 알아보았다. 〈표 11〉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에서 야당 지지자들의 일관투표 비율이 여당 지지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에 일관투표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여당에 대해 실망한 유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두 유권자 모두 지지하는 정당에 전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당일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도 많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006년 정치상황은 2018년과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과거보다 정치적 대립,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지지가 강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임기 초 선거였는데 비해 2006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임기 말 선거로 여당 및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여당 지지자들에게 많았으며 야당 지지자들의 야당에 대한 불만도 높은 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1〉 정당별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 지지 정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0표	35	37.2%	59	20.7%
1표	3	3.2%	3	1.1%
2표	6	6.4%	2	0.7%
3표	7	7.4%	5	1.8%
4표	12	12.8%	16	5.6%
5표	4	4.3%	26	9.1%
6표	27	28.7%	174	61.1%
계	94		285	

카이제곱=41.79(p〈0.001)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관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다른 표들은 어디로 향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열린우리당에 5표만을 행사한 4명 유권자의 투표를 보면 대부분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투표하였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여당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저항투표는 제1야당에 집중된 것이라 하겠다. 2018년 여당 지지자들의 투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투표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여당에 대한 불만 그리고 여당의 불리한 위치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저항투표를 불러온 것인데 소정당이 아닌 제1야당으로 향하였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라 하겠다.

〈표 12〉 열린우리당 5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선거 / 정당	광역 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의회	기초비례	계
열린 우리당	3	3	4	2	4	4	
한나라당	1	1	0	1	0	0	3
민주당	0	0	0	0	0	0	0
민주 노동당	0	0	0	0	0	0	0
국민 중심당	0	0	0	1	0	0	1
무소속 및 기타	0	0	0	0	0	0	0

다음으로 열린우리당에 4표 지지한 유권자의 나머지 투표는 어디로 갔는지 살펴보았다. 〈표 13〉에서 보듯이 5표 투표한 유권자와 유사하게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투표한 유권자가 다수였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투표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제1야당에 대한 투표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다.[6)]

〈표 13〉 열린우리당 4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선거 / 정당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광역 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	기초 비례	계
열린 우리당	10	8	9	5	6	10	
한나라당	1	2	0	3	3	0	9
민주당	0	2	2	0	0	0	4
민주 노동당	1	0	1	1	1	2	6
국민 중심당	0	0	0	1	1	0	2
무소속 및 기타	0	0	0	2	1	0	3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 일체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살펴보았다. 먼저 5표를 행사한 지지자들의 선택을 보면 무소속 및 기타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다수가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여당에 대한 지지를 크게 못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지지자들도 발견할 수 있는

6) 이러한 경향은 열린우리당에 3표 이하를 행사한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나타나고 있다.

데 유리한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견제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것이며 민주노동당의 경우 크게 위협되지 않은 정당으로 생각하여 선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18년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 정의당을 선택한 유권자가 소수였는데 이는 2018년 정의당의 위상과 2006년 민주노동당의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14〉 한나라당 5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선거 / 정당	광역 단체장	광역 의회	광역 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 의회	기초 비례	계
열린 우리당	1	0	2	1	1	0	5
한나라당	23	22	22	23	14	26	
민주당	0	1	0	0	0	0	1
민주 노동당	0	1	1	1	2	0	5
국민 중심당	1	0	0	0	0	0	1
무소속 및 기타	1	2	1	1	9	0	14

다음으로 한나라당에 4표를 행사한 지지자들의 투표선택을 살펴보았다. 앞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무소속 및 기타 후보를 선택한 지지자들이 다수다. 야당 지지자들은 여당 선택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정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지지자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한나라당에 대한 저항투표 그리고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표 15〉 한나라당 4표 선택한 지지자들의 다른 선택

선거 / 정당	광역 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비례	기초 단체장	기초의회	기초비례	계
열린 우리당	4	0	0	2	1	0	7
한나라당	11	10	14	14	3	12	
민주당	0	2	1	0	3	1	7
민주 노동당	0	0	1	0	2	3	6
국민 중심당	0	0	0	0	0	0	0
무소속 및 기타	1	4	0	0	7	0	12

열린우리당 지지자들과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투표선택을 살펴보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불리한 상황에 있던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순수투표 경향이 낮고 일관투표가 낮은 편이다. 반면 유리한 위치에 있던 한나라당 지지자들의 순수투표는 매우 높고 일관투표도 높은 편이다. 이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결과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일관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살펴보면 불리한 상황에 있는 여당 지지자들은 제1야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유리한 상황에 있는 제1야당 지지자들의 여당 선택은 소수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 지지자들의 제1야당 선택이 높았다는 점에서 유사점도 있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에 놓인 제1야당 지지자들의 여당 선택이 낮았다는 점에서 차이도 발견된다. 이는 여당이 유리할 때는 제1야당에 대한 선택을 통해 견제심리가 나타나고 있지만 야당이 유리한 경우에는 여당 선택을 통한 견제심리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투표지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7] 이념,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 연령을 통해 차이를 살펴보았다. 열린우리당 지지들간에는 연령을 제외하고 뚜렷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투표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을 제외하고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투표는 노무현정부에 대한 평가, 열린우리당에 대한 호감도를 통해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당의 절망적인 선거상황에서 지지자들의 선택은 여당과 노무현정부에 대한 선호도가 주요인이라기보다는 후보자 혹은 연령과 같은 다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표 16〉 두 유권자 투표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분석

변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F 값	유의확률	F 값	유의확률
이념	0.458	0.838	0.822	0.512
노무현정부 평가	0.979	0.444	3.238	0.013
지지하는 정당 호감도	1.118	0.358	2.771	0.018
연령	2.425	0.032	2.951	0.021

이에 비해 제1야당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에게 있어 노무현정부 평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도, 연령은 투표 정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당 지지자들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복합적인 요인에 영향 받아 투표를 결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2018년과 비교하여 볼 때 야당 지지자들은 선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현 정부에 대한

7) 2018년 설문조사와 달리 2006년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상황을 묻는 문항이 없다. 또한, 각 정당에 대하 선호도를 측정한 설문문항이 없었다. 이념의 경우 문항은 있지만 측정방식이 달라 결과를 2018년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평가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받아 투표지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당 지지자들은 선거상황에 따라 투표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여당의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와 제1야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다. 유권자의 특징을 좀 더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2018년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전개된 2006년 지방선거 즉, 제1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도 알아보았다. 특히,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상황이 유리한 정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높은 순수투표 그리고 일관투표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위해 높은 순수투표와 일관투표를 보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유리한(혹은 불리한) 경우 여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투표선택은 야당이 유리할 때(혹은 불리할 때)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 선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여당 지지자들은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외에 제1야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보다는 무소속 혹은 소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는 여당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불리할 때는 이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선거상황에 따라 보여주는 일반적인 투표행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고 자유한국당(한나라당)이 야당이었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이 된다면 여기서 발견한 지지자들이 보여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선거상황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지에 따라 지지자들의 투표행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특히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투표행태의 특징을 선거상황과 연계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특징이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는 각

선거가 지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압승한 경우가 없다는 점은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투표행태가 다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특징을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거상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강신구. (2014). 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OUGHTOPIA」, 29(1): 65-95.

강원택. (1999).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치의 영향: 지방적 행사 혹은 중앙정치의 대리전?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Ⅲ」, 서울: 푸른길

강원택. (2010). 2010 지방선거에서의 분할투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6(4): 1-26.

김정도. (2014). 1인 2표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구 선거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의 차이 분석. 「의정논총」, 9(1): 143-170.

김형준. (2010). 6·2 지방선거 분석: 집합자료 결과와 유권자 투표 행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3(2): 1-27.

박원호·신화용. (2014).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8(5): 119-142.

박찬욱. (2004). 제17대 총선에서 2표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한국정치연구」, 13(2): 39-84.

송건섭·이곤수. (2011).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5(3): 49-71.

송정민·노환희·하헌주·길정아. (2012). 제19대 총선과 분할투표: 유권자의 특성과 야권연대의 효과를 중심으로. 박찬욱·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서울: 나남.

윤광일. (2014). 6·4 지방선거와 분할투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3(3): 35-67.

이남영. (2011). 중앙정치 갈등의 표출로서의 지방선거: 지역, 이념, 정당갈등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2(4): 219-240.

이재묵. (2014). 2014년 지방선거 : 지역주의는 완화되었는가?. 「국가전략」, 20(4): 97-124.

장승진. (2019). 한국 지방선거의 다층적 회고적 투표: 2018년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8(1): 10-26.

정진민.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2): 1-21.

정한울. (2013). 정당 태도갈등이 투표행위 변동에 미치는 영향: 18대 총선 및 19대 총선 패널조사(KEPS)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243-277.

조진만·최준영. (2006). 1인 2표 병립제의 도입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 일관투표와 분할투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1): 71-90.

지병근. (2014). 선거구 제도와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투표행태: 2010년 기초의회선거 사례 분석. 「한국정치연구」, 23(2): 185-210.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최효노. (2015). 경쟁정당에 대한 선호도와 후보요인이 분할투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14(2): 55-82.

한상익. (2013). 2표병립제에서 군소정당 지지자들의 전략투표. 「한국정치학회보」, 47(5): 235-254.

황아란. (2013).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현직효과와 중앙정치의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7(5): 277-295.

황아란. (2015).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 역대 지방선거 후보 득표율의 통합자료 분석. 「지방정부연구」, 19(3): 365-386.

Campbell, Angus and Warren E. Miller (1957). The Motivational Basis of Straight and Split Ticket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1(2): 293-312.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NY: Wiley.

Johnston, Ron and Charles Pattie. (2002). Campaigning and Spilt-Ticket Voting in New Electoral Systems: The First MMP Elections in New Zealand, Scotland, and Wales. *Electoral Studies,* 21(4): 583-600.

접수일(2019년 08월 01일)
수정일(2019년 08월 21일)
게재확정일(2019년 08월 26일)

〈국문초록〉

2018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특징 분석: 2006년 지방선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뚜렷한 상황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여당의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와 제1야당에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다. 유권자의 특징을 좀 더 세밀히 알아보기 위해 2018년과는 상반되는 상황이 전개된 2006년 지방선거 즉, 제1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의 유권자 투표행태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2006년과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거상황이 유리한 정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높은 순수투표 그리고 일관투표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불리한 상황에 놓인 정당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위해 높은 순수투표와 일관투표를 보일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여당이 유리한 경우 여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투표 선택은 야당이 유리할 때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 선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는 여당 및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지만 불리할 때는 이러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지지 정도는 유리할 때와 불리할 때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이 선거상황에 따라 보여주는 일반적인 투표행태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특징이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대통령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유권자들, 특히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투표행태의 특징을 선거상황과 연계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순수투표, 일관투표, 정당일체감, 정당 호감도, 투표행태